

2/20/22

설교 제목: 성막 건축 준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35 장 1-35 절

(출 35: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출 35:2) 옛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드릴 것들(출 25:1-9)

(출 35: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출 35: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출 35:6)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과 염소 털과

(출 35:7)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출 35:8)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출 35:9)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출 35:10)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출 35:11)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출 35:12)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출 35:13)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출 35:14)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출 35:15)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출 35:16)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출 35:17)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출 35:18)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출 35: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 (출 35: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출 35: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 35:22)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출 35:23)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출 35:24)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출 35:25)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뺨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을 가져왔으며
(출 35:26)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출 35:27)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출 35:28)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출 35:29)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 일꾼(출 31:1-11)

- (출 35: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출 35:31)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 35:32)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출 35: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출 35: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출 35:35)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본장은 모세가 하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전하고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에 앞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출 35: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첫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입니다.

(출 35:2) 옛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성막 건축에 대하여 언급하기 앞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역사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므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더 우선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후 곧바로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을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봉헌할 것을 지시하고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재능을 갖춘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그들이 제작해야 할 품목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자발적인 예물을 드리라고 지시합니다.

(출 35: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출 35: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출 35:6)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과 염소 털과

(출 35:7)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출 35:8)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출 35:9)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것들은 제사장의 복식과 성소의 양장 휘장을 만드는데 사용될 재료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는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 성소의 제 1 양장 및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을 만들었고 가는 베실로는 제사장의 반포 속옷과 관, 고의를 만들었습니다.

염소 털로는 성소의 제 2 양장을, 수양의 가죽으로는 성소의 제 3 양장을, 해달의 가죽으로는 성소의 제 4 양장을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의 목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등유는 감람 나무의 열매에서 얻은 기름으로 성막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었으며

관유는 감람 나무의 기름에 몰약과 유계와 창포, 계피의 향을 섞어서 만든 기름으로 성막의 모든 물품에 발라 지성물로 구별하거나 제사장들에게 부어 성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분향할 향품은 소합향 나감, 풍자향 유향으로 만들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소 분향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호마노는 에봇의 양쪽 견대에 부착할 보석으로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일 곁에 입었던 앞치마처럼 생긴 긴 옷입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백옥은 흉패에 물릴 12 개의 보석입니다.

또한 모세는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재능을 갖춘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그들이 제작할 품목들을 열거합니다.

(출 35:10)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출 35:11)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출 35:12)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출 35:13)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출 35:14)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출 35:15)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출 35:16)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출 35:17)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출 35:18)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출 35: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숙련된 재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역을 위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불러 쓰시며 또한 친히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막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제 1 양장과 제 2 양장을 말합니다.

이 중 제 1 양장에는 가늘게 꼰 베실 등으로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천막은 제 1, 2 양장을 덮는 제 3 양장, 덮개는 제 4 양장을 가리킵니다.

덮개는 방수와 방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널판은 성막의 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띠, 기둥, 받침은 널판들을 연결시켜 고정시키는 도구들입니다.

증거궤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증거판과 아론의 싹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에 성소의 중심인 지성소에 보관되었으며 이동시에는 백성들의 행군 대열 제일 앞에 위치하였습니다.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뚜껑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룹들이 날개로 법궤를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리는 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치는 휘장입니다.

이외에도 성소의 입구를 가리기 위한 휘장이 있습니다.

전설병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의 순결한 상 위에 드리는 감사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대로 열두 개를 두 줄로 놓아 드러졌으며 물려 낸 후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 안을 밝히는 등대는 제사장이 매일 저녁 밝히고 다음날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켜줍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 휘장 앞 한 가운데 마련되었습니다.

성막 문의 장은 성소 입구의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놋 제단과 그 부속 기구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태워 바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물두명은 일종의 세수 대야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놋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물을 담아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의복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씻거나 성소의 출입 전 손과 발을 씻어 몸을 정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포장은 성막의 경계를 이루는 세마포로 된 울타리입니다.

장막 말뚝은 성막의 양장이나 덮개를 땅에 고정시키는 말뚝으로 보입니다.

뜰의 포장 말뚝은 뜰의 포장을 고정시키는 말뚝입니다.

줄은 장막이나 뜰의 포장을 말뚝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자발적인 헌물을 드렸습니다.

(출 35: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출 35: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 35:22)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출 35:23)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¹⁾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 (출 35:24)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 (출 35:25)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뺨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을 가져왔으며
- (출 35:26)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 (출 35:27)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 (출 35:28)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 (출 35:29)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이 슬기롭다'는 말은 '숙련된 재주가 있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여자
들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는 자원하는 뜨거운 심령을 가리킵니다.

족장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보석과 관유와 향을 만들 재료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 (출 35: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 (출 35:31)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 (출 35:32)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 (출 35: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 (출 35: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 (출 35:35)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총 책임자로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성막을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 가르치는 임무도 동시
에 담당하였습니다.

공교한 일은 '발명, 고안, 기묘한 일' 등과 같은 의미로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여 아름답고 예술적인 기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또 브살렐의 조력자로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로 직물 제작 및 조각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모든 재능을 갖춘 성막 건축 자원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슬기롭고 온전하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당신께 나아가게 되는지를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계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을 칭찬하거나 높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신을 들어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랑은 교만을 가져옵니다.

자랑이 교회 내에 침투하면 분열이 생깁니다.

브살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감동시키사 성막을 직접 제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자들을 가르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하게 하여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역을 다시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